

구소련 내 민족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전병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초 록 >

냉전이 종식 된 후 전면전 규모의 전쟁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민족분쟁의 성격의 내전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전의 원인은 주로 민족과 민족 간의 인종 간, 문화적, 역사적 갈등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의 대립으로 기인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구소련 시절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어진 공화국의 경계선은 소연방의 해체 후 분쟁의 여지를 남겨 두었고, 특히 4개의 지역(나고르노-카라바흐, 남오세티아,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은 얼어붙은 분쟁의 지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몰도바와 몰도바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인들의 분리독립 운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Daniel S. Treisman과 Kathleen M. Dowley이 제시한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소련의 해체 직후 러시아연방내에서 일어난 분리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이론화 하였다. Daniel S. Treisman은 민족적 자기인식, 동원화, 협상력, 지도자의 특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이론화 하였고, Kathleen M. Dowley는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을 근본주의적, 도구주의적, 상대적 박탈감, 자원동원의 시각으로 분류해 이론화 하였다.

이론을 소개 한 후에는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역사 및 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성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민족갈등의 원인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 2.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 2.1 몰도바 및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역사
 - 2.2 경과
 - 2.3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과 분석
- III. 결론 및 한계점

I. 서론

냉전 종식 후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국지적, 국내적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외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입압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발생한 116개의 분쟁 중 89개의 분쟁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내전이였다.¹⁾

이러한 내전은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민족들 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표적인 예가 소련의 해체로 인해 발생한 민족분쟁일 것이다.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분쟁은 구소련 체제에서 인위적으로 행해진 민족, 영토의 분할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다.

이러한 구소련 정책의 결과로서 대표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조지아와 러시아간의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그리고 몰도바와 러시아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즉 소위 말하는 얼어붙은 분쟁 지역을 구소련 영토 내에 남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소련 공간에 남겨진 얼어붙은 분쟁지역 중의 하나인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리주의 운동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리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일어난 분리주의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여 이론화한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을 소개하고 분석의 틀로 삼았다. 그리고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역사를 소개 한 후 상기의 이론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II. 본론

1. 민족갈등의 원인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본론에서는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 내에서 일어났던 분리주의 운동을 통해 이론화한 학자 Daniel S. Treisman과 Kathleen M. Dowley의 이론을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에 적용해 살펴보도록 한다. Daniel S. Treisman은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을 민족적 자기인식, 동원화, 협상력, 지도자의 특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이론화 하였고, Kathleen M. Dowley는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을 근본주의적, 도구주의적, 상대적 박탈감, 자원동원의 시각으로 분류해 이론화 하였다.

Treisman의 이론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족적 자기인식이다.²⁾ 지역의 분리운동의 정도는 구성원의 민족, 문화, 언어, 종교의 자기 인식의 정도 혹은 강도와 연관된다. 만약 어떤 지역의 분리운동의 성격이 민족적 자기인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이러한 자기인식의 범위와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통해 파악해야한다.

자기인식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역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1) Mikael Eriksson and Peter Wallenstee, "Armed Conflict, 1989-2003", *Journal of Peace Research* 41:5 (September 2004), p. 626

2) Daniel S. Treisman, "Russia's ethnic Revival : The Separatist Activism of Regional Leaders in a Postcommunist Order", *'World Politics'*, Jan 1997.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분리운동이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공산주의 때 드러나지 않던 민족 정체성이 정치 해빙에 따라 다시 나타나거나 보다 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측면을 강조한 시각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왜 다른 민족운동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시각은 민족 정체성은 산업화 혹은 근대화와 같은 사회역사적 과정에 의해 뚜렷해지고, 근대화는 근대화 이전에 소외된 집단을 서로 접촉하게 하고 차이점을 느끼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Rakowska-Harmstone이 지하민족주의 성장에 적용하면서 발전되고, 왜 근대화는 집단인식의 민족적 기반을 활성화시키는가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초기 근대화에서 기존의 친척 네트워크의 사회자본, 시골문화 집단, 그리고 근대화 이전 종교조직은 근대화의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여 집단행동을 육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전통적 집단화의 지도자들이 근대화는 그들의 자율성 기반을 저해할 것이라는 위협에 민족적 운동으로 반응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근대화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직업적 분화는 기존의 민족 분할을 강화하고, 불공평한 산업화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민족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배제된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자극 한다는 것이다.

Horowitz는 민족에 따라 차별화된 직업과 기회가 있는 문화적 노동 분업이 큰 곳에서 더 큰 민족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³⁾ Joseph Rothschild는 민족의 정치화가 잘 일어나는 여건은 구조화된 민족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⁴⁾ Tedd Gurr는 스페인의 바스크, 웨벡, 미국, 우크라이나와 슬로베니아 지역의 예를 들며 분리주의 운동은 분리주의 운동이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없는, 즉 가장 덜 분리한 집단일수록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주장하였다.⁵⁾

근대화와 경제적인 차이 외에 때로는 국경 갈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잠재적이었던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 경우도 있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의 유고연방의 분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동원화이다. 왜 특정 지역의 지도자들은 분리주의 요구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항상 민족적 지표 혹은 특징이 존재하고, 집단행동을 위해 개인들을 동원하는 조직이 출현하는지 여부가 분리주의 운동의 발생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집단이 동원되는 여부는 정치적인 기업가가 선택적 유인을 제공하고 구성원의 감시를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협상력이다. 중앙의 리더십은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부를 하면 양보나 제재로 반응한다. 반응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은 협상력이다. 협상력의 차이를 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상 지위이다. 여러 지역의 협상력이 다른 것은 협상을 지배하는 제도 시스템에서 차이나는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80년대 말 러시아에서의 민족 집단은 자치 공화국, 자치 주로 나뉘었는데 자치 공화국들은 자치주보다 더 큰 권리와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중앙에서 당에 충성하는 엘리트를 만드는 정책은 공화국에서 더 진행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치 공화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행정 수준에서의 경험과 다른 자치주들보다 협상력을 위한 더 큰 제도적 자원

3) Donald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4) Joseph Rothschild, *Ethnopolitics : A Conceptual Framework*(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5) Ted Robert Gurr, *Minorities at Risk : A Global View of Ethnopolitical Conflicts*(U.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3). P82

을 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게임 상의 이득이다. 지역지도자가 처음에 분리주의 활동에 간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는데, 먼저 지역지도자가 증가된 독립성의 획득을 목표로 한 전략의 일부로서 그렇게 행동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그 지역은 중앙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을 때 더 큰 이익에 대한 더 큰 긍정적 기대를 가져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그 지역의 지도자가 큰 독립성을 원하지 않더라도 후퇴에 대한 보상으로 중앙으로 부터의 제재 위협은 믿을 수 없어야 하고, 협상이 실패 했을 경우 중앙의 비용이 분리하려는 지역보다 커야 한다.

독립을 성취함으로써 기대이익이 크고 지역 지도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클수록 분리주의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앙의 능력이 작거나 비용이 클수록 분리주의의 요구를 주장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리더십의 특성이다. 어떤 지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이 민족 전체에게 양의 효과가 기대 되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는 지도자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앙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투자한 지도자와 중앙 기관에 개인적으로 통합된 지도자들은 분리주의 운동에 주저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지역수준의 조직에 정치적인 자본을 많이 투자한 리더들은 잠재적인 분리주의 지지자를 동원하고, 그들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중앙과의 대립을 이용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Kathleen M. Dowley 이론을 살펴보자. 그는 분리주의 운동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4 가지의 범주로서 이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본주의적인 시각이다.⁶⁾ 이는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를 원초적인 민족 정체성 인식에 기초한 지속적 문화 전통의 선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내 문화적 분열은 이해관계나 계급 분열보다 보다 본질적인문제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소련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고 사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구주의적 시각이다. 민족성이란 상황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고, 재창조 될 수 있는 다양한 의식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관점에서 보면 구 소련시절 억압당했던 민족이 소연방 붕괴로 인해 반드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연방이 붕괴한 것은 다양한 민족의 통합을 이루는 효과적 수단을 발견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이지 근본주의와 같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리주의 운동이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일종의 대응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도구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쟁점은 천연자원 통제권, 지방별 세율, 외국과의 자율적 통상협정 체결권 등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시각에서 보면 자원을 많이 보유한 지역의 주지사는 자율성과 독립을 요구 할 것이란 짐작을 가능케 하며, 부유한 지역에서는 경제 수뇌부와 정치 수뇌부의 결탁의 가능성이 더 크고, 단결이 강할수록 중앙과의 협상에서도 단결 더 큰 단결성을 보여 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상대적 박탈 강조의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은 민족 집단의 정치적 행동의 일차적 동기라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에서는 과거 소연방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은 연방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탈퇴 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 Kathleen M. Dowley, "Striking the Feral Bargain in Russia: Comparative Regional Government Strateg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4, 1998.

네 번째는 자원동원의 시각이다. 과거 소연방 국가의 특정 연방 제도에서 공식적 자치권을 가졌고, 민족집단의 정치적 기반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정치적 임명이 있었던 지역이 붕괴시작 후 분리 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았던 지역에 비해 많음으로서 중앙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Treisman과 Dowley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 두 이론에서는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데 Treisman의 민족적 자기 인식적 시각, 즉 분리주의의 발생을 민족의 역사, 언어, 종교 등으로 파악한 것은 Dowley의 근본주의적 시각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는 혈연, 가족, 친족관계 등이 집단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분쟁은 역사적 상황의 계승 혹은 과거부터 주어진 시각으로 본다.

또한 Treisman의 협상력의 차이를 게임의 이득으로 설명한 견해는 Dowley의 도구주의적 시각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동원의 여부를 분리주의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한 시각은 Treisman의 행정상 지위를 이용한 협상력으로 파악한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구주의적인 시각 하에서는 정치권력, 자원 등의 유용성이 분쟁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분쟁은 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2.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2.1 몰도바 및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역사

트란스니스트리아 분리주의 분쟁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몰도바의 역사를 살펴보자. 몰도바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의 첫 접촉은 키예프 공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이 지역에서는 갈라시아-볼히니아 공국이 세워진다. 몽골과 헝가리가 이 지역을 통치한 후인 14세기에는 루마니아인들에 의한 몰도바공국⁸⁾이 건설되었다. 몰도바공국은 북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으로부터 동으로는 드네스트르, 남쪽으로는 흑해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역사적으로 몰도바는 베사라비아, 북부코비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세 지방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4세기 동안 폴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코삭,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몰도바의 운명을 좌지우

7) 고재남, ‘구소련 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8) 현재 루마니아 내 몰도바 지방과 프루트 강 동쪽의 바사라비아 지역을 포함하는 영토이다. 이 지역은 14세기 초 루마니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후 16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812년 이후 프루트강 동쪽의 바사라비아 지역은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1918년 바사라비아 지역은 루마니아와 연합하면서 루마니아의 영토가 되지만 1940년 다시 소비에트에 합병 되었다. 루마니아는 1941년 이 지역을 잠시 되찾지만 1944년 다시 소비에트로 넘어가게 된다.

지했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1775년 부코비나 지역을 정복하였다.

몰도바인은 18세기 초반부터 드네스트르강 좌안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터키를 1812년 패배시키고 몰도바공국의 동부지역과 베사라비아 지역을 정복하였다. 프루트강 서부지역에 위치했던 몰도바공국은 왈라치아와 합병, 1859년 루마니아를 건설하였다. 러시아는 1856년 3월 30일 파리조약에 의하여 베사라비아 남부지역을 몰도바공국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1887년 베를린 회의를 계기로 러시아는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베사라비아의 러시아화를 촉진하였고, 이 지역으로 러시아 관료 및 일반 국민,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베사라비아 지역을 신러시아로 건설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제국과 오스트리아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러시아 볼셰비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부코비나 북부를 차지하기 위해 경합하였다. 베사라비아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917년 10월 이후 베사라비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독립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연합하여 적군과 싸웠고, 국경문제는 차후에 매듭짓기로 합의하였다. 베사라비아는 1918년 12월 몰도바민주공화국으로 국호를 개칭하였으나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양국은 연방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독일, 불가리아계 의원들은 루마니아와의 연방구성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회 내에서의 투표에 불참하였다. 볼셰비키들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루마니아가 베사라비아를 합병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루마니아는 1918년 11월 부코비나 전지역을 점령하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부코비나 북부지역을 우크라이나로 병합시키려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있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베사라비아의 북부 지역인 호틴시치나와 남북 지역인 부자크가 루마니아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루마니아의 지배에 항거하여 베사라비아의 호틴과 타타르분나리에서 1919년, 1924년에 반란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위치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1924년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⁹⁾을 수립하였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지역의 베사라비아인들에 대하여 문화적 자치를 허용하는 등 유화정책을 폈으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에 의하여 1940년 소련은 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를 합병하였다. 또한 소련군은 부코비나 북부지역에 체르니베츠키주, 베사라비아 북부지역의 호틴, 루마니아 남부지역의 헤르차, 남부 베사라비아의 이즈마일과 에커만 지역 등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영문 MASSR(Moldavi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이며 니스트루강 동쪽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1924년에 소비에트에 의해 세워진 몰도바자치국이다.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1940년에 바사라비아를 중심으로 MSSR이 성립되면서 합병 되었다.

합병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베사라비아 영토와 몰도바 자치공화국의 영토를 합쳐서 ‘몰도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¹⁰⁾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나치독일군과 연합하여 몰도바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부흐강과 오멧사까지 점령하였고, 그 후 이 지역의 루마니아화를 위하여 문화 활동을 탄압하는 등 강압정책을 폈다. 소련군은 1944년 여름 베사라비아지역을 재점령하였으며, 1940년에 확립한 행정질서를 재확립하였다.

이후 모스크바 당국은 발트 3국에서와 같이 수많은 현지인들을 강제 추방, 투옥, 사형시킴과 동시에 이곳으로 대대적인 러시아인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소비에트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40년 당시 총인구의 6%를 차지하던 러시아인이 1959년에는 10.2%, 1989년에는 13%로 증가되었다. 모스크바는 몰도바인들이 루마니아에 대한 유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몰도바어의 라틴어 알파벳을 러시아문자화 하였으며, 당, 정부, 군의 주요 직책을 러시아인으로 임명하였다.

2.2 경과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은 몰도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반체제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7년 말 일단의 작가동맹의 회원들이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88년 들어서 대대적인 반체제운동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정치 및 문화적 자유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체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모스크바는 전기한 바와 같이 몰도바를 루마니아와 격리시키기 위하여 언어정책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모스크바에 대한 몰도바인들의 반감을 심화시켰다. 1988년 몰도바 반정부 세력들은 루마니아어의 국어화, 루마니아어의 알파벳의 라틴어화,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동일성 인정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결과 양측 간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어 정치적인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모스크바 당국은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전후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해 왔으므로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도바는 1989년 8월 31일 소연방 구성국 중 처음으로 몰도바어가 국어임을 밝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언어법은 또한 라틴어 알파벳을 재도입하고 몰도바어와 루마니아어가 동일한 언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몰도바인의 민족주의는 물론 다른 소수 민족들의 민족주의를 발흥시키면서 민족분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몰도바 정치정세를 급진주의화시키면서 독립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심지어 인민전선은 루마니아와의 통합 달성이 궁극적인 정치목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몰도바의 루마니아 통합의 큰 장애물은 역시 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몰도바 내에는 상당수의 5개 민족, 즉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불가리아인, 가가우즈인,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치시나우 당국의 친루마니아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었다. 이들 민족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시나우 당국이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가우즈인, 그리고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독자적인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1990년 6월 23일 몰도바 정부가 주권을 선언하자 소수민족들은 이에 대응하였다. 가가우즈인들은 1990년 8월 20일 몰도바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소연방 인원으로 남기 위한 ‘가가우즈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하였고, 러시아인들은 1990년 9월 드네스트르강 좌안에 전략

적으로 중요한 티그히나를 포함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몰도바는 발트 3국과 유사한 독립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 노력한 반면, 소연방의 국가적 행사에는 불참하였다. 즉, 1991년 연방의 존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발트 3국과 함께 불참하였고, 8월 쿠데타 후에는 8월 27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였다. 또한 몰도바 당국은 역내 소련군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2.3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과 분석

소위 말하는 ‘몰도바 사태’라고 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분리운동 움직임은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1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몰도바의 일원이기보다는 독립국으로서 소연방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신연방 조약’¹¹⁾에 조인할 뜻을 밝혔다.

민족분쟁이 발생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약 6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러시아인 25.4%, 우크라이나인 28.3%, 몰도바인이 4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대부분 1960년대 산업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고, 나머지 몰도바 영토는 제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영토의 일부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스탈인은 연방재편 과정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 루마니아의 영토 일부를 떼어내 몰도바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 지역의 민족분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몰도바 정부가 몰도바어의 국어화와 같은 소수 민족을 차별하는 언어 정책과 루마니아로의 합병 정책을 표시하면서 부터이다. 드네스트르강 좌안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은 1990년 9월 독자적인 공화국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분리 독립을 지지하려는 몰도바인과 러시아인이 같은 해 11월 충돌하면서 양민족간 민족분쟁이 악화되었다.

몰도바지역의 민족분규는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더욱 격렬해 졌다. 8월 쿠데타 이후 몰도바가 8월 27일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몰도바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몰도바인과 러시아인의 유혈충돌이 발생 하였다. 엘친은 몰도바가 독립선언을 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몰도바를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정부 및 군은 비러시아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러시아 최고회의 대표들은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대표들 간의 회담을 중재하였다. 러시아 측의 중재로 양측은 무기의 자진 반납, 몰도바 보안부대의 철수,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의 지도자 및 터키계 지도자의 석방,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대한 철도봉쇄의 해제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법을 준수하고 파업, 봉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민족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몰도바인과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과의 충돌은 수개월 동안 계속 되었다. 이러한 상황

11)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이 장차 독자정부를 갖추고 외국과 외교관계를 개별적으로 수립 할 수 있으나 국방 및 외교정책의 통제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된다는 내용의 조약으로 1992년 3월에 체결 되었다.

에서 몰도바 대통령 스네구르(Mircea Snegur)¹²⁾는 러시아 당국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민족분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14군 및 러시아에서 온 코작 출신의 용병들이 양 민족 간의 분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몰도바가 CIS 창설에 관련된 제반 협정에 서명할 것을 권유하면서도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에 관한 한 언급을 회피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자들을 부추겼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스네그루는 결국 1992년 1월말 UN과 다른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러시아는 국내 상황,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분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CIS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지자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레프는 1992년 3월 4일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서에서 몰도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태 악화는 몰도바 뿐 아니라 전 CIS 국가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로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4국의 외상이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분쟁 당사자들 간 휴전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유혈충돌이 계속 되자 코지레프는 3월 28일 성명을 발표,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러시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할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도바 당국도 독자군 창설계획을 발표하였고, 루마니아는 이데 대한 몰도바의 지원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지도부는 계속해서 소연방과 소군사력의 재확립을 주장하였다. 이 공화국은 처음 민병대를 조직하고, 나중에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을 창설하였는데, 이를 러시아군이 처음부터 지원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군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한 몰도바군을 패배시키면서 드네스트르강 좌안의 모든 행정조직을 장악 했으며, 1992년 3월에 접어들면서 강 우측에 있는 주요 도시들도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지도부와 러시아 14군 소속 지휘관들은 강 우안의 주민이 원할 경우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에 합병 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1992년 3월부터 몰도바군도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주요지역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14군의 탱크와 기관포, 단거리 미사일 및 훈련된 장교들의 지원을 받은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의 군사력은 몰도바군의 그것보다 월등하였다. 러시아 14군은 4월의 벤데리(Bendry) 전투, 5월의 두바사리(Dubasary) 전투, 6월의 벤데리 전투에 직접 개입하였다. 특히 6월의 전투는 전면전 비슷한 양상을 띠었고 화력 면에서 열세인 몰도바군은 참패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군은 러시아 14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네스트르강 우측으로까지 점령지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몰도바 정부는 7월 결국 군사적으로 대항할 것을 포기하고 모스크바 당국에 군사적 개입을 철회할 것을 긴급히 호소하였다.

7월부터 9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스네구르와 옐친 간 수차례 회담이 개최되어 양측은 정전협정에 합의하고 이를 감시, 실행할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합의하였다. 또한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간의 협상을 중재할 대표를 러시아에서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평화유지군은 러시아 14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출되었으며, 러시아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몰도바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 주둔군을 증강시켜 주었다. 또한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의 영토 확장과 공화국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

12) 1990년 대통령 선거에서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90년 9월 3일 취임했다.

향력 및 드네스트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몰도바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평화유지군의 국제화와 분쟁 해결의 국제화를 모색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몰도바가 소연방에서 독립하면서 루마니아로의 합병을 표방하자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러시아인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유혈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위에서 살펴본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역사를 통해서 분쟁의 원인을 먼저 근본주의적 혹은 민족적 자기 인식의 범주에서 살펴보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영토 중 12.2%를 차지하며, 1989년 당시 몰도바 전체 인구의 12.6%인 546,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인구분포는 몰도바인 39.9%, 우크라이나인이 28.3%, 러시아인은 25.4% 구성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는 달리 루마니아적 정체성 보다는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관계한 역사적 집단의식이 더욱 강하게 형성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련시절에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언어, 교육, 종교 등의 소련 화 정책이 취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어 학교가 설립 되었고, 루마니아어 사용은 금지되었다. 소련 연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이러한 정책은 친 러시아적 성향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소연방시기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군수업과 중공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였지만, 몰도바의 서부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¹⁴⁾

[표1]분쟁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경제 비중¹⁵⁾

산업분야	비율 %
대형 전기 기계	100
변압기	100
가스콘테이너	100
면직물	96.6
전기에너지	87.5
시멘트	58.1
저마력 전기엔진	55.8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도바 경제 내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GDP의 3분의 1이상이었고, 대형전기기계, 가스콘테이너, 변압기는 몰도바 내 전체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외에 면직물, 전기에너지, 시멘트 등도 절반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블록이 형성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우리’, 베사라비안의 몰도바인은 ‘그들’이라는 정체성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져 갔다. 이러한 러시아적 정체성과 타 지역보다 높은 러시아인의 거주 비율은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13) Steven D. Roper, “Regionalism In Molova : The Case of Transnistria and Gagauzia”, 2010

14) Natalia Cojocaru, “Nationalism and Identity in Transnistria” 2006

15) 엄태현(2010), “몰도바공화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고찰”, ‘동유럽발칸학’ 12권 2호.

고르바초프에 대한 8월 쿠데타 이후, 1991년 9월 1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러한 쿠데타에 자극 받아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과거부터 주둔 했던 러시아 14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무기로 무장 했고, 민병대 조직을 준군사조직 화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도부 및 분리운동의 지지자들은 몰도바로부터의 분리 투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인 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리 독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실은 도구주의적인 시각의 측면에서 게임상의 이득을 통한 협상력의 우위에 있으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대통령의 특징을 살펴보자. 독립 이후 이고리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가 2006년의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4선을 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탈소 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을 보았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대통령의 특징은 몰도바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III. 결론 및 한계점

구소련 지역내 분쟁 지역 중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리주의 운동을 분석해 보기 위해 먼저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의 이론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쟁 원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상기의 두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틀을 적용 했을 때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분쟁은 부분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몰도바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안에서의 민족 구성이 다른 몰도바 지역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고, 과거 소련시절의 친 소련화 정책, 러시아인 거주지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경제적 격차, 게다가 몰도바 전체적으로 루마니아화 하려는 경향에 대응하여 분쟁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정체성 보다는 소련시절 취해진 정책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도구주의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과거 소련방시절의 14군이 남겨 놓은 무기와 화기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 군대를 조직화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이는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소련방시절부터 친 소 성향을 보였기에 러시아로의 독립을 향한 충분한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분리운동은 민족적 혹은 근본주의적인 원인보다는 도구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재남, “구소련 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김성진(2007), “몰도바 공화국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징”, ‘슬라브학보 24권 2호’.
- 박종일·김은정(2008), “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검토 : 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통권 제 13집’.
- 엄태현(2009), “루마니아와 몰도바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변화양상”, ‘동유럽발칸학 11권 1호’.
- 엄태현(2010), “몰도바공화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고찰”, ‘동유럽발칸학’ 12권 2호.
- Mikael Eriksson and Peter Wallenstee, “Armed Conflict, 1989~2003”, *Journal of Peace Research* 41:5 (September 2004), p. 626.
- Daniel S. Treisman, “Russia's ethnic Revival : The Separatist Activism of Regional Leaders in a Postcommunist Order”, ‘World Politics’, Jan 1997.
- Donald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Joseph Rothschild, *Ethnopolitics : A Conceptual Framework*(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 Ted Robert Gurr, *Minorities at Risk : A Global View of Ethnopolitical Conflicts*(U.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3). P82
- Kathleen M. Dowley, “Striking the Feeral Bargain in Russia: Comparative Regional Government Strateg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4, 1998.
- Steven D. Roper(2010), “Regionalism In Molova : The Case of Transnistria and Gagauzia”, ‘Regional & Federal Studies, 11:3’.
- Natalia Cojocaru(2006), “Nationalism and Identity in Transnistria”, ‘The E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9:3-4’.